

주제강의: 교회 사역 안에서 여자의 섬김 Women Serving in the Ministry of the Church - 7

(adapted from “Report of the Ad Interim Committee on Women Serving in the Ministry of the Church to the For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2017))

1.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여자의 역할들의 일관성

Coherence between the Roles of Women during the Earthly Ministry of Jesus and the Pauline Epistles

예수님은 열두 명의 남자를 그의 사도로 세우셨다: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다대오, 시몬, 그리고 유다이다 (마 10:2-4) 예수님은 사도들을 그의 기반적인 증인으로 임명하셨다. 그는 그의 사역 동안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 증언하도록 훈련시키셨다 (요일 1:1-4; 요 1:14; 행 1:8; 행 4:20). 그의 부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를 보았다. 그들은 만지고, 보고, 믿고, 증언하였다 (눅 24:39; 요 20:20-25); 행 4:20). 그들은 교회의 근간이 되는 메시지를 설교하고 기록하였다.

복음주의 평등주의는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중요성을 축소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남자 리더들을 선택하신 것이 오늘날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고대 문화에 연관된 일시적인 조건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성 사도들을 세우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먼 과거에 존재했으므로 예수님이 남자 리더십을 세우신 것 역시 과거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당시 사회적 감정을 거스릴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여자들을 제자들로 세우시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동반자로 세우지 않으시겠는가?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회적 관습을 깨시는 일을 하셨다. 나병환자를 만지셨다. 세리와 창녀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다. 이방인들을 치유하셨다. 안식일에 요구되는 관습을 어기셨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셨다.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통념을 깨셨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시고 그와 함께 여행하게 하셨다 (눅 8:1-2). 예수님은 수많은 관례들을 어기셨는데 하나 더 깨시는 것을 마다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예수님은 도덕적인 이슈가 문제가 될 때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고, 지성적으로 열등하고, 그러므로 공적인 리더들로 합당하지 않았는가? 열두 제자들도 고학력자들이 아니었는데 (마 13:54-57; 요 7:15; 행 4:13)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리더십을 받아들였다. 공식적인 교육은 사역의 요구사항이 아니었다.

여행이 여자들에게 너무 위험했는가? 남자들에게도 여행은 위험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채찍질 당했고,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배가 파선되었고, 잠도 이루지 못했고, 굶었고, 목말랐고, 추위에 떨었고, 벌거벗었었다 (고후 12:23-27). 더 나아가 때로는 위험이 있어도 사도들의 아내들도 함께 여행했다 (고전 9:5)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만일 예수님이 남자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남자들만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열두 명의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만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선택하는 성별이 기준이라면 어느 민족이냐도 그렇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인 리더들을 세우신 것이 선례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등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남자를 선택하신 것도 선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는 비유에 근거한다. 예수님이 남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결정이 그가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신 결정과 같은 것이라 한다. 유대인 리더들을 선택하신 것이 일시적인 것이므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남자를 선택하신 것도 일시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비유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신 것은 남자들을 정하신 것과 다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자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특별한 요소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특권은 일시적인 것을 보여준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을 때에는 이방인들이 곧 리더들이 되었다. 디도,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그리고 누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고후 8:16-23; 빌 2:25-30; 골 4:7-14; 엡 6:21-22; 몬 23-34). 디도와 같은 남자들은 큰 권위를 행사하였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 바울이 마치지 못한 사역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였다 (딤후 1:5). 여자에게는 그런 임무를 맡기지 않았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열두 명의 남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선례로 보았다. 그들이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울 때, 남자가 그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남자 ἀνδρῶν)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행 1:21-22)”.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인간을 뜻하는 *anthropos* 가 아니라 남자를 뜻하는 *aner* 이다. 후에, 사도들은 그 선례를 또 다시 따라 교회가 일곱 남자(*aner*)를 선택해서 교회의 구제 사역을 관장하게 하였다 (행 6:1-6).

1) 에베소서 5 장과 순종 Ephesians 5 and Subordination

에베소서 5 장 22 절(“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의 본문처럼 논란이 많은 구절도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많은 남자들이 바울의 명령을 남용하고 이기적으로 여자들 위에 군림하는 변명으로 인용한다. 에베소서 5 장이 말하는 아내들의 순종은 남편들이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권위에 순종한다는 개념을 거부하는 시대에 많은 여자들은 (많은 남자들과 더불어) 그들이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경멸한다.

문맥상 보자면,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라는 명령은 두 개의 더 넓은 명령을 발전시킨 것이다. 에베소서 5:1-2 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18 에서는 “(5:18)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한다. 문법적으로 보자면 다음 다섯 개의 동명사는 분사(participle)들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특징을 묘사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엡 5:19-21)

“피차 복종하라”라는 구절은 성경에서 가정의 삶을 묘사하는 큰 본문 중의 하나인 에베소서 5:22-6:9 의 본문 위에 하나의 배너로 서 있다. “피차 복종하라”는 놀라운 표현이며 표면적으로는 모순 같아 보인다. 복종은 신약과 성경의 헬라 문서들에서 일방적인 표현이다.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hypotasso)한다 - 하나님, 왕, 통치자, 또는 관리에게 복종한다. 사람들은 부모와 법에 복종한다. 복종은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의지에 양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복종할 것인가? 그들은 둘 다 상대방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종할 것인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상대방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가능한 답이 있다.

첫째 가능성은 믿는 사람들은 그들 위에 있는 그 어떤 권위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는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권위 체제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것보다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들은 그들 위에 언제든지 어떤 이가 적법한 권위를 가지게 되면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도행전 5:29 에서 말하는 예외 조항처럼 명령이 죄악된 행동이나 죄악된 이유로 행동을 아예 안 할 것을 요구한다면 불복해야 하지만 말이다.)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극히 이타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부모가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바뀔 수 없는 권위 체제는 계속 남아 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가서 자야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녀는 “좋아요, 하지만 당신들도 가서 자야 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가능성은 모든 고정된 권위 관계가 상대적으로 되어 버려서 일시적인 필요나 서로가 동의하는 때 말고는 아무도 다른 사람 위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리드할 일반적인 의무가 없고 목사들은 그들의 교회 위에 본질적인 권위가 없으며,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 위에 객관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첫째 가능성을 선호하고 긍정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은 상관 있는 권위들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가 모든 이에게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음 주장이 맞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권위 체제는 남아 있다.

이유 1: “복종”(hypotasso)라는 단어는 복종시키다, 굴복하게 하다, 조종 아래에 들어오게 하다 또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다. 에베소서 5 장을 제외하면 복종은 모든 신약 성경에서의 용례에서 일방적이다. Hypotasso 는 보통 지위나 능력에서 아래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나 능력의 사람에게 양보(yield)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은 모든 크리스천이 모든 이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은 어떤 권위든지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은 언제든지 적법한 권위가 있을 때 복종하라는 말이다.

이유 2: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주된 이유는 “피차”라는 말 때문이다. “피차”라는 말은 헬라어로 ἀλλήλοις 라는 대명사를 번역한 말이다. 영어에서 “피차”라는 말은 완전한 상호관계를 의미하지만 헬라어는 그렇지 않다. 빌립보서 2:3(“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나 마가복음 9:50(“... 서로 화목하라...”)에서는 완전한 상호관계가 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완전한 상호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2 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짐을 바꿔 지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갈라디아서 6:5(“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이 보여주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바울은 완전한 상호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더 가벼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때에 따라 적절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적절할 때에 순종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 장은 사람들이 그들 위에 적절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명한다. 에베소서 5:22-6:9 의 본문은 서로 완전히 상호적인 순종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조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하지만 그 반대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상호관계가 결혼관계의 규범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내들은 순종하고 남편들은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다시 말해 남편은 그의 아내를 지극히 이타적으로 섬겨서 그가 그녀의 필요와 바램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타적인 것이 바울에 따르면 리더십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본문은 또한 순종의 범위를 제한하여 완전한 상호성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모든 남성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한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종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만 남편들, 부모들, 주인들에게 아내들, 자녀들, 또는 종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유 3: 바울의 다른 글들은 권위 체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다스리는 권위들을 복종하라고 명령한다. 바울은 교회에게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한다. 그는 정부가 백성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감독들에게 사람들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는다 (살전 5:12). 에베소서 5 장은 완전한 상호관계를 가르치거나 권위 체제가 무너졌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자녀들은 부모들을, 종들은 주인들을 순종하며 그 반대는 아니다.

바울의 지시는 권위의 개념을 바꾼다.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을 위해 희생하고,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인들이 종들을 위협하지 않고 존중하여 대한다면 (엡 5:25; 엡 6:4; 엡 6:9), 권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힘을 사용한다면, 그 체제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 정신은 바뀐 것이다.

권위들은 남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자비롭게 리드하면 그들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남편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귀하게 보살피고, 주인들이 위협을 버리고, 권위들이 그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향해 굽힌다면,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권위를 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크리스천 남편과 새롭게 결혼한 과부에게, 크리스천 아버지에게 새롭게 입양된 고아에게는, 만일 그들이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들로부터 떠났다면,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일 것이다. 그들의 필요는 중요하다. 임의적인 요구는 사라진다. 크리스천들은 권위를 충분한 사랑을 동반하여 행사함으로써 모든 삶이 새로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어떤 모양이든 목적만 이를 수 있으면 아무 체제나 다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되지는 않는다. 아직도 남자들이 가정의 방향을 책임져야 하고, 그 가정이 잘 됨을 위해서이다.

물론 결혼은 다른 권위 관계들과 다르다. 바울은 자녀와 종들에게 순종(obey)하라고 하고 아내들에게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submit)하라고 한다(역자 주: 한국어 번역은 복종이 순종보다 강한 표현으로 들리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obey 가 submit 보다 더 강하게 들린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좀더 상호적인 것을 암시한다. 기억해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서 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은 더 상호적이어서 아내가 남편을 침대로 부를 수 있다 (고전 7:3-5). 더 나아가 복종은 헬라/로마 문화에서 리더가 세우는 경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복종은 매우 심하게 비하하는 표현이다.)